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소년 공과

제 7 권



KAFC 출판부

주제: 온전한 헌신(몸, 각각의 영적 의미)

순서	청소년 공과
제 79 공과	내부를 고쳐야 해요
제 80 공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제 81 공과	마을 전도자
제 82 공과	돕는 손
제 83 공과	지혜로운 자의 귀
제 84 공과	급류
제 85 공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제 86 공과	큰 변화
제 87 공과	일기장
제 88 공과	특별한 어머니
제 89 공과	자원하여 주기
제 90 공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제 91 공과	안전한 미래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공과 7 권에서는 온전한 헌신에 관한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는 말씀을 토대로 마음에 대해 제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있어서 육신의 각 지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지체뿐 아니라 의지와 시간과 돈과 인간관계와 미래까지 모두 드려야 함을 배울 것입니다.

공과 7 권을 공부하면서 많은 경우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처럼 혀를 다루는 공과 내용은 마음에 관한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분을 하나로 떼어내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헌신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으로 시작되지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헌신은 매일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헌신에 관하여 공부하기 위해 13 가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79 공과 내부를 고쳐야 해요

성경본문: 마가복음 7:14-23; 누가복음 6:45

요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케빈은 플라스틱 원반을 던져 거실에 있는 의자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반이 너무 높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쿵’ 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 있던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케빈은 무엇이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안 돼!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였습니다. 그는 시계를 집어 들고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외부는 부서지지 않았지만,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그는 시계를 벽난로 위에 올려놓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10 시 34 분이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원반을 잡아 벽장 속에 넣은 후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30 분 후에 거실로 돌아와 초조하게 시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 시계인지 알았기에 집 근처 시계 수리센터에 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가방에 넣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센터로 가기 위해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습니다.

"이 시계 고쳐주실 수 있나요?" 케빈이 시계를 접수대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플라스틱 원반을 날리다가 실수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시계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시계 수리공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시계바늘은 괜찮네. 시계바늘은 문제가 없지만, 시계 내부를 수리해야 한단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 보지만, 생각과 다르게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욕을 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적은 없었나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시계 내부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계바늘과 같습니다.

시계 수리공은 시계 바늘이 다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시계 내부를 수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람 마음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잘못을 고쳐 주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잘못된 행동과 말에 대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것을 구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셨는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변화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케빈의 이야기에서 케빈은 시계 내부를 고치지 않는다면 시계바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케빈은 시계 수리공이 시계 내부 수리를 마치고, 그에게 시계를 주었을 때 시계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가 수리비를 지불했지만, 시계가 똑딱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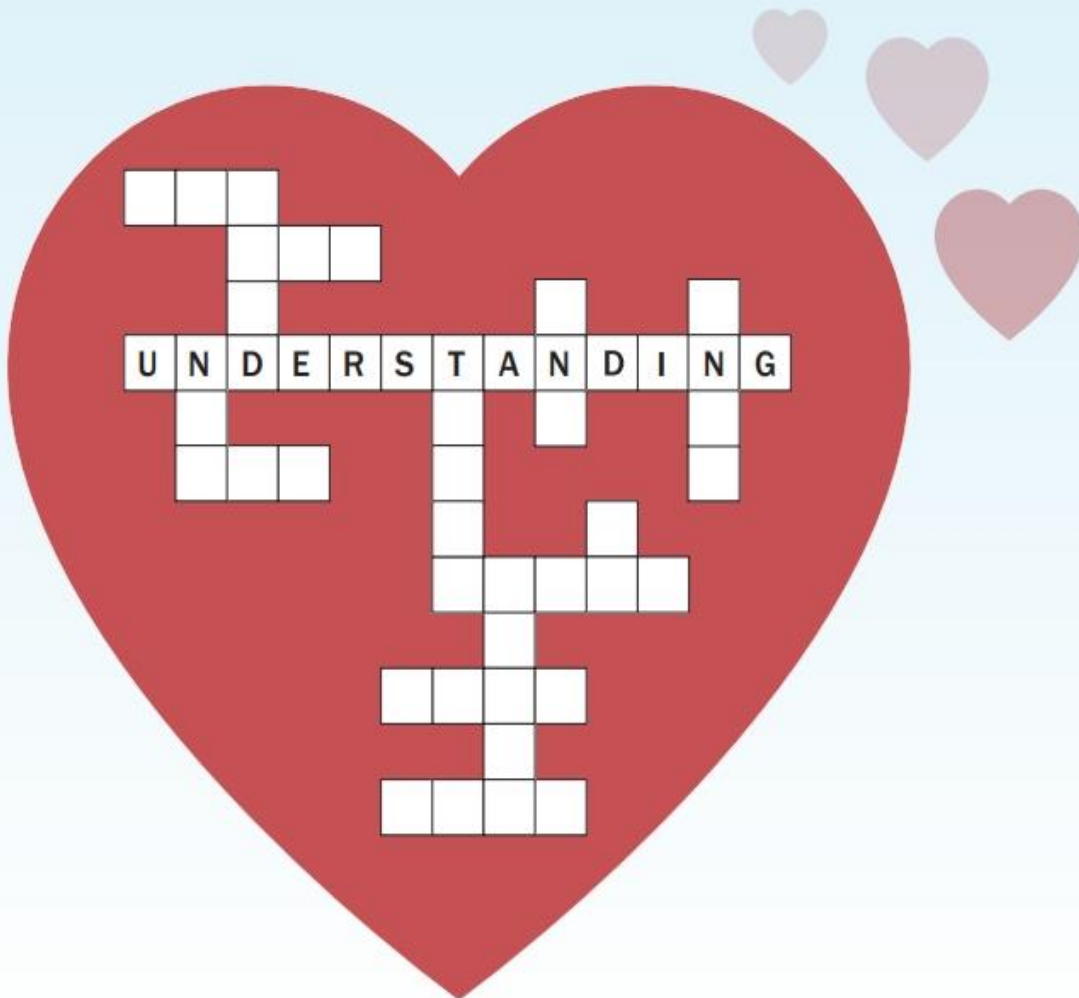
시계 수리공은 시계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Lesson 79 Activity

**HERE'S MY
HEART**

Write the Key Verse (Proverbs 3:5) on the lines under the heart. Next, using the number of letters in each word as a guideline, write all the words in the spaces provided inside the heart. The word UNDERSTANDING has been given to start you off. NOTE: Use *THINE* only o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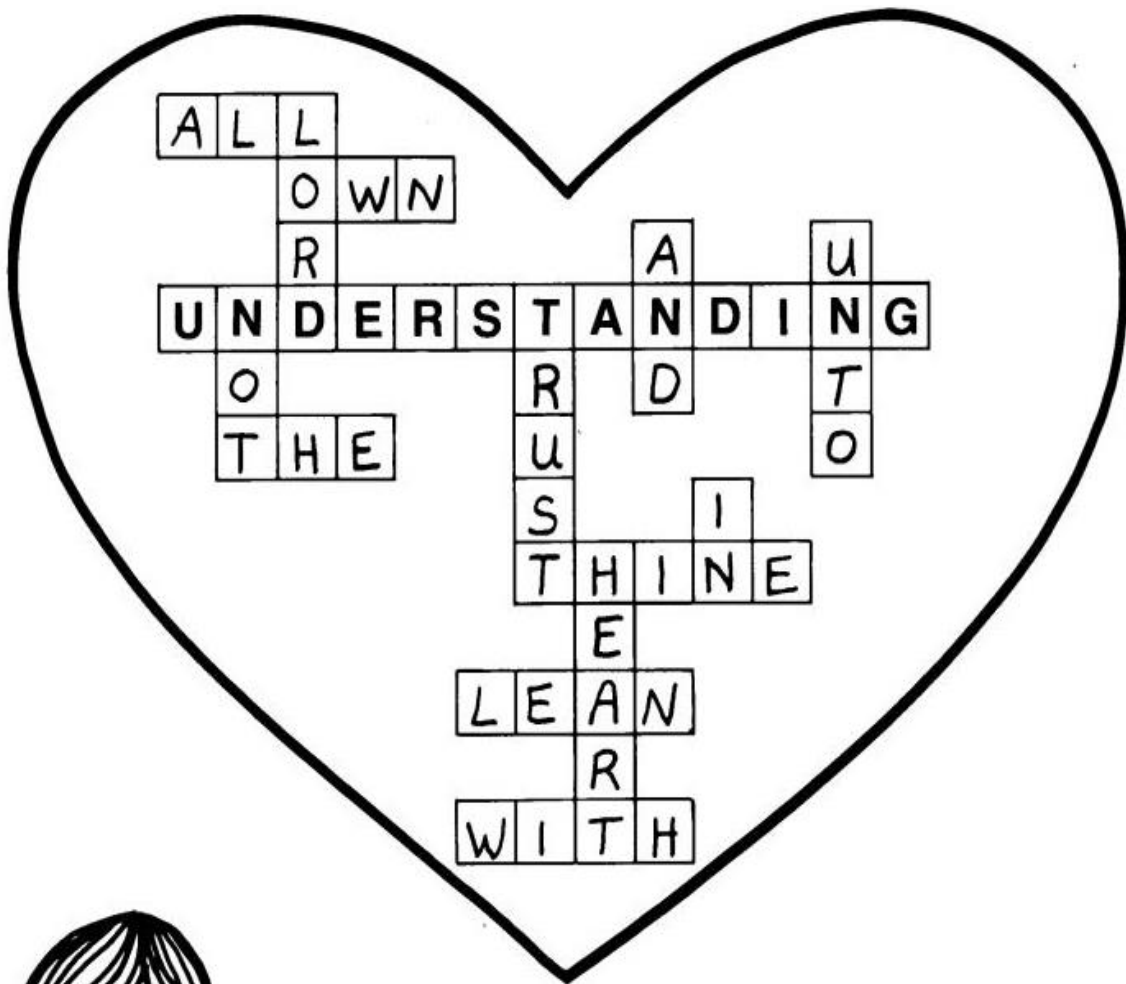


- Proverbs 3:5

"IT'S ALL YOURS, LORD"

나의 마음

요절 말씀(잠 3:5, KJV)을 하트 그림 아래 쓰십시오. 하트 그림 안에 요절 말씀 단어를 적어보세요. UNDERSTANDING 단어를 시작으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THINE 는 한번만 적으세요.)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Proverbs 3:5

제 80 공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성경본문: 야고보서 3:1-18

요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마태복음 12:34)

자전거 가게의 주인인 폴은 손님이 들어오는 벨 소리를 듣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마테오.”

마테오가 폴에게 물었습니다. “안녕, 폴. 내 자전거 수리가 끝났니?”

“아니, 자전거 부품을 주문해야 해서, 월요일 오후에 부품이 오면 화요일 오전에는 수리가 끝날 거야.”

마테오는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수리가 안 됐다니? 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자전거 시험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폴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마테오, 정말 미안해. 나는 네가 토요일에 시험이 있는 줄 몰랐어. 미리 얘기했더라면 부품 주문을 빨리했을 텐데.”

마테오는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네 탓이야. 나는 이번 시험에 이길 수 없게 되었잖아. 내 자전거 줘. 다시는 이 형편없는 가게에 오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폴은 가게 문을 닫은 후,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공원으로 가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마테오와 있었던 일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폴의 친구였습니다. 폴은 마테오를 좋아했지만,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을 거칠게 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폴은 마테오와의 관계가 잘 해결될지, 마테오가 폴의 가게에 계속 올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폴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 가는 낯익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테오였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마테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마테오, 자전거 일은 정말 미안해. 네 자전거가 빨리 고쳐지지 않아서 시험에 네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안 좋지. 내가 자전거 부품을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마테오는 무안한 듯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 괜찮아, 폴. 오늘 아침에는 내가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나도 후회하고 있었어. 내가 너에게 화를 냈는데도 너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화가 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이 튀어나와.”

폴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태초부터 말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성경 야고보서에는 한 장 전체가 사람의 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비유의 말씀도 있지.”

마테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가 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하는 말이 견잡을 수 없는 불이 되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폴이 말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 성경에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라고 되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마테오가 물었습니다.

“자, 마테오, 생각해 봐. 너는 찬장 안에서 무엇을 꺼내니?”

마테오는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찬장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꺼내니.”

“맞아.” 폴이 말했습니다. “찬장 안에 없는 것을 꺼낼 수는 없어. 네가 찬장 안에 넣어둔 물건을 꺼내는 거야. 이것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지. 마음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말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공원을 한번 봐. 잘 가꾼 잔디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잖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을까?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있었고,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거야.”

너의 마음이 이 공원과 같아. 좋은 것이 나오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고.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너의 마음이 잡초와 같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의 좋은 생각들은 자라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네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너의 마음에 오셔서 잡초를 뽑아달라고 기도해 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사랑과 평안의 씨를 뿌려 주실 거야.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좋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찬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듯이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올 거야.” 이 대화를 통해 마테오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테오는 공원에서 조깅하다가 폴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마테오는 발을 헛디디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테오는 늘 화를 내며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마테오는 무릎에 묻은 흙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네. 폴 괜찮니?”

폴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테오, 무슨 일 있었니? 예전에 네가 아닌 것 같아.”

마테오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지난번에 공원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눈 후 내 마음의 ‘찬창’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

폴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마테오! 네 마음이 변화되었다고. 내가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다니 난 정말 기뻐.”

Lesson 80 Activity

**WHAT DID
HE SAY?**

It is impossible to speak English without vowels. Add the missing vowels to the words in this verse and read what Solomon, the author of Proverbs, had to say about good words.



P l _ _ s _ n t w _ r d s _ r _ _ s _ n

h _ n _ y c _ m b , s w _ _ t t _ t h _

s _ _ l , _ n d h _ _ l t h t _ t h _

b _ n _ s . - P r _ v _ r b s 16:24

"IT'S ALL YOURS, LORD"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아래 그림에 해당하는 영어 모음을 밑줄 위에 쓰고,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A - ☆

E - □

I - x

O - ?

U - ♥

Pleasant words are as an
honeycomb, sweet to the
soul, and health to the
bones.
Proverbs 16:24



제 81 공과 마을 전도자

성경본문: 마태복음 25:31-40; 야고보서 2:15-18

요절: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키샤나와 조딘은 오늘 오후 교회 특별집회에서 페루선교 보고를 들은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키샤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친구 조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조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했거든. 그런데, 여기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야?"

조딘이 말했습니다. "키샤나, 네가 페루에 꼭 가지 않아도 돼. 멀리 갈 필요는 없어. 우리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곳에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아주 많아."

키샤나는 여전히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이것은 우리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길 건너 월슨 아주머니 알지? 그분은 교회에 가지 않잖아.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학교 사회 과목 선생님 있지. 그분은 종교에 대해 반감을 품어. 야고보서 말씀에 믿음을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보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음 주 학교에서 키샤나는 사물함을 열고 있는 조딘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조딘, 점심때 학교 식당에서 만나.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키샤나가 조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시작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말이 맞았어. 조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국을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니었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나는 아리엘을 만났어. 그는 교회에 한 두 번 왔었는데, 몇 달 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잖아. 그가 나를 보고 먼저 반가워하는 거야. 우리는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나는 아리엘에게 교회에 오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엄마가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서 아리엘은 일요일 아침에 여동생을 돌봐야 한대. 교회에 오려면 동생과 같이 가야 하는데, 동생이 교회까지 걸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깐 가겠다고 했더니, 다음 주 주일에 동생과 함께 교회에 오기로 했어."

조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인도나 중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키샤나 맞니? 아리엘은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잖아. 멀리 갈 필요가 전혀 없었네”

키샤나가 조단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교회 전도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주일 오후에 요양원에 청년들이 찬양을 부르러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 너를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어. 너희 집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고.”

조단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어, 그럼, 가야지. 난 그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도 가고 싶어.”

키샤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 가 봤는데 정말 좋았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고, 그분들을 방문하는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하셨어.”

조단은 마지막 쿠키를 먹고 냅킨을 쟁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몇 시에 가지? 누가 우리를 데려가는 거지?”

키샤나가 킬킬 웃었습니다. “우리 발로 가는 거지. 이곳에서 우리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는데 걸어서 간데. 요양원은 교회에서 멀지 않거든.”

“걸어서 그곳에 가기에는 좀 멀지 않니? 누가 교회 차로 데려다주면 좋을 텐데.”

“조단, 걸어서 가는 것이 좋지. 네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나에게 얘기했잖아.”

“그래. 걸어서 가야지.” 조단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후 수업에 빨리 걸어가는 게 좋을걸. 얼른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우리를 지각이라고 표시할 것 같은데.”

Lesson 81 Activity

**FOOTPRINT
FIND**

Find all the words from this week's key verse hidden in the wordfind below.



- 01.** Tidings
- 02.** Good
- 03.** Bringeth
- 04.** God
- 05.** Of
- 06.** Upon
- 07.** Feet
- 08.**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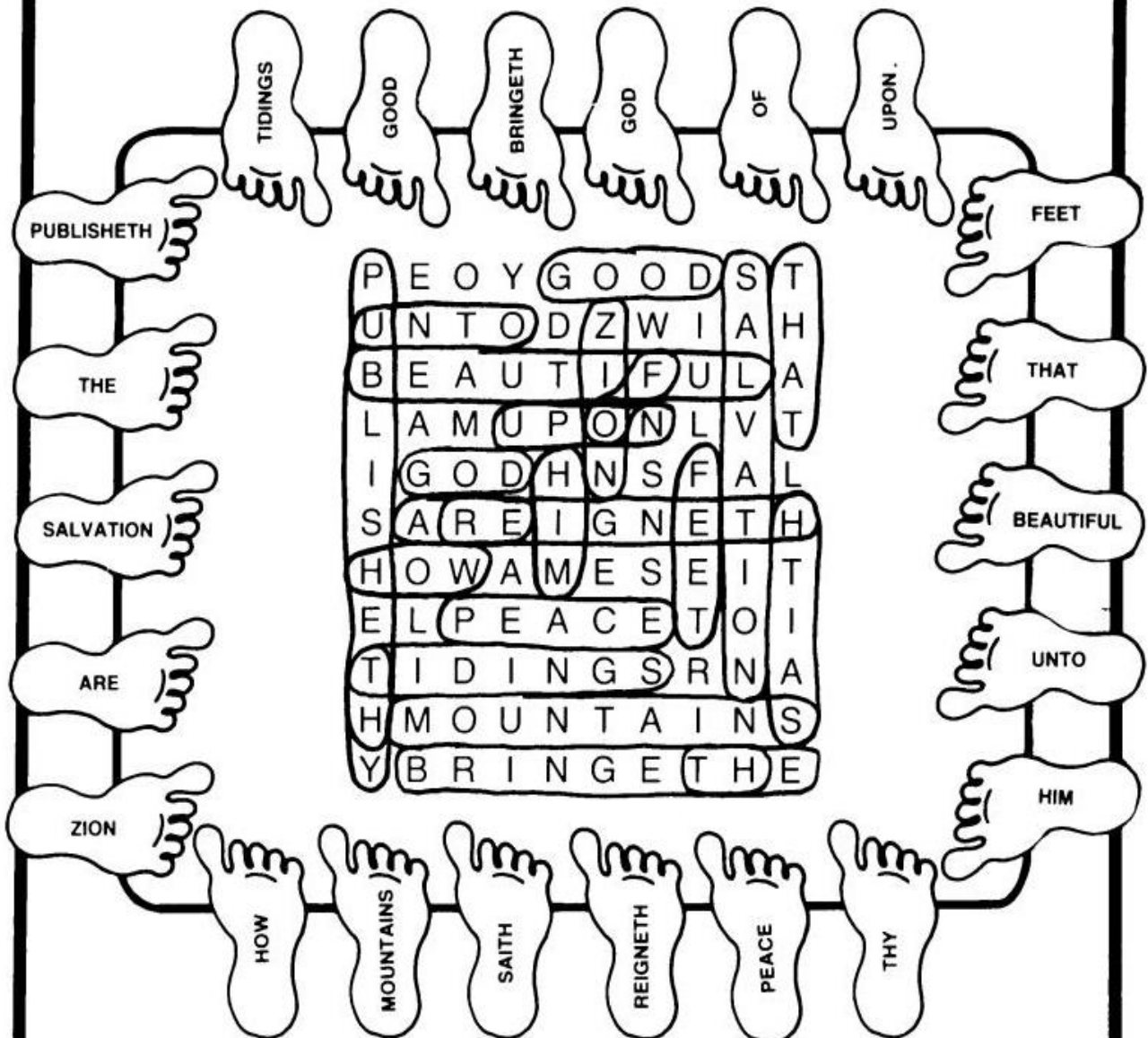
- 09.** Beautiful
- 10.** Unto
- 11.** Him
- 12.** Thy
- 13.** Peace
- 14.** Reigneth
- 15.** Saith
- 16.** Mountains

- 17.** How
- 18.** Zion
- 19.** Are
- 20.** Salvation
- 21.** The
- 22.** Publisheth

"IT'S ALL YOURS, LORD"

발자국 단어 찾기

아래 발자국에 적힌 단어를 아래 퍼즐에서 찾아 보세요. 발자국 단어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How beautiful up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him that bringeth good tidings, that publisheth peace; that bringeth good tidings of good, that publisheth salvation; that saith unto Zion, Thy God reigneth! 이사야 52:7 KJV)



제 82 공과 돕는 손

성경본문: 출애굽기 17:8-14; 사무엘상 30:18-25; 마태복음 10:41-42

요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도서 9:10)

교회 예배가 끝나고 에릭의 부모님은 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에릭은 어땠지?" 에릭의 어머니는 에릭을 찾기 위해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에릭은 침울한 표정으로 예배실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릭?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

"엄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에릭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니?"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릭은 교회 카펫 위로 발을 굽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너는 아빠와 나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니?"

"아, 그건 알죠. 엄마, 여기 교회에서 말이에요. 저만 빼고 모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성가대 대원이고, 아빠는 안내 위원이고, 여동생 제인은 관현악 단원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실을 정리하는 것만 하잖아요."

"그 일은 아주 중요하단다. 에릭,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잖니."

에릭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냥, 저를 이해 못 하시네요, 엄마."

다음 주 주일, 에릭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론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에릭은 아론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에릭의 기도와 끈질긴 권유로 아론이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배실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특별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한 학생이 있습니다. 바로 에릭입니다. 에릭, 앞으로 나와줄 수 있겠니?"

에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가 목사 옆에 섰습니다.

"에릭, 오늘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나요?"

"제 친구 아론이 저와 함께 왔습니다."

"1 년 동안 주일학교에 에릭이 몇 명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지 아나요?"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에릭이 1 년 동안 15 명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에릭의 친구 중 많은 학생이 지금까지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에릭이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을 모르기 때문이죠. 에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전도서 9:10). 이것은 단순히 손을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에릭이 친구를 교회로 데려온 일은 예수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듣지 않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릭이 지금까지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에릭이 한 일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에릭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에릭은 목사님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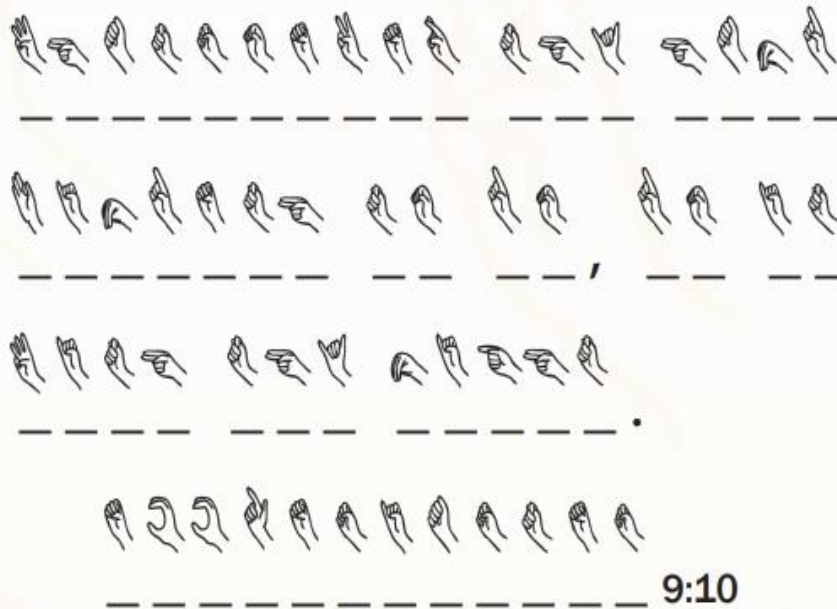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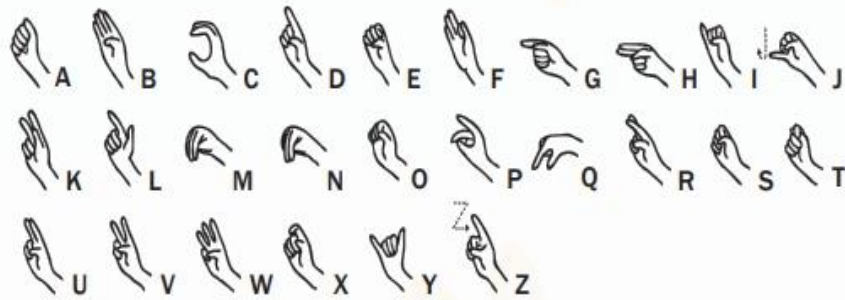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교회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피곤해져서 더 이상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이 해가 질 때까지 모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자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에릭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Lesson 82 Activity

**SAY IT WITH
H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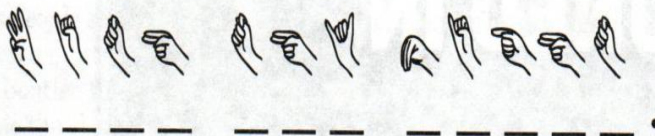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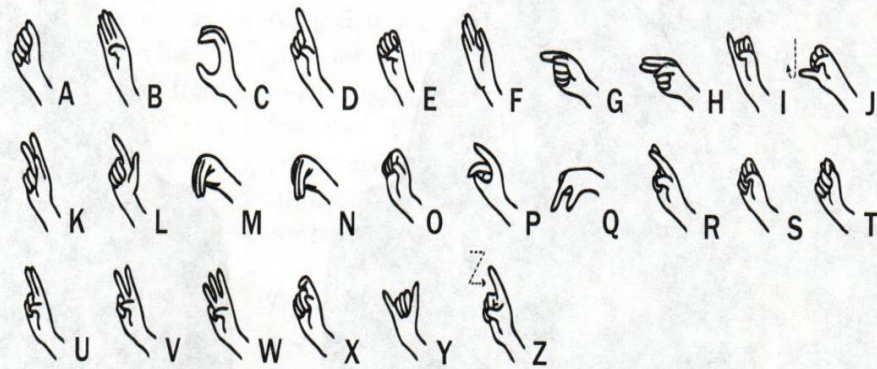
Did you know that hands can “talk”? When they do, it is called sign language. Using the sign language chart, fill in the correct letter for each hand sign given in the verse below. Want an extra challenge? Try using sign language to say another of your favorite Bible verses.



“IT’S ALL YOURS, LORD”

손으로 말해요!

손 모양 암호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밑줄 위에 쓰고, 오늘 요절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전 9:10 KJV)



9:10

제 83 공과 지혜로운 자의 귀

성경본문: 잠언 17:4; 마태복음 7:24-27; 누가복음 8:11-15; 디모데후서 4:3-4

요절: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잠언 18:15)

인사를 하기도 하고, 복도에서 서로 부딪혀서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사과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항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어머니 아빠가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농담하면 그 말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을 필기하고 그것을 외우거나 기억합니다. 나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때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 학교에서 벤틀리가 나에게 월슨이 자신의 옷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친구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들리는 모든 것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진실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듣고 있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록 음악이었습니다. 록 음악의 리듬이 내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가사는 어떠했을까요? 나는 록 음악의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마약, 술, 부도덕한 행동들이 미화되어 좋은 것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가사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노래의 가사는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배우고 익힐 때, 그 노래는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학교와 동네 여기저기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너무 많지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 내 마음속에 새겨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공부할 부활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주신 다짐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자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들어야 하는 것과 듣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의 집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면 영적인 집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자, 집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 귀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열려 있도록 도와주소서.”

Lesson 83 Activity

BREAK THE CODE

Do you want to find out what your ears should be tuned to?

Use the Morse code on the left to decipher this message.

Write the words on the empty lines. There is a slash between the letters and two bold vertical lines between the words.

A	· —
B	— ...
C	— · — ·
D	— ..
E	·
F	·· — ·
G	— — ·
H
I	..
J	· — — —
K	— · —
L	· — ..
M	— —
N	— ·
O	— — —
P	· — — ·
Q	— — · —
R	· — ·
S	...
T	—
U	·· —
V	... —
W	· — —
X	— · · —
Y	— · — —
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8

"IT'S ALL YOURS, LORD"

모스 부호 풀기

여러분의 귀가 무엇에 맞춰져야 하는지 알고 싶나요? 아래 모스부호에 맞는 알파벳을 찾아 밑줄 위에 적어 보세요.



A	· —
B	— · · ·
C	— · — ·
D	— · ·
E	·
F	· · — ·
G	— — ·
H	· · · ·
I	· ·
J	· — — —
K	— · —
L	· — · ·
M	— —
N	— ·
O	— — —
P	· — — ·
Q	— — — —
R	· — ·
S	· · ·
T	—
U	· · —
V	· · · —
W	· — —
X	— · · —
Y	— · — —
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WILL

HEAR

WHAT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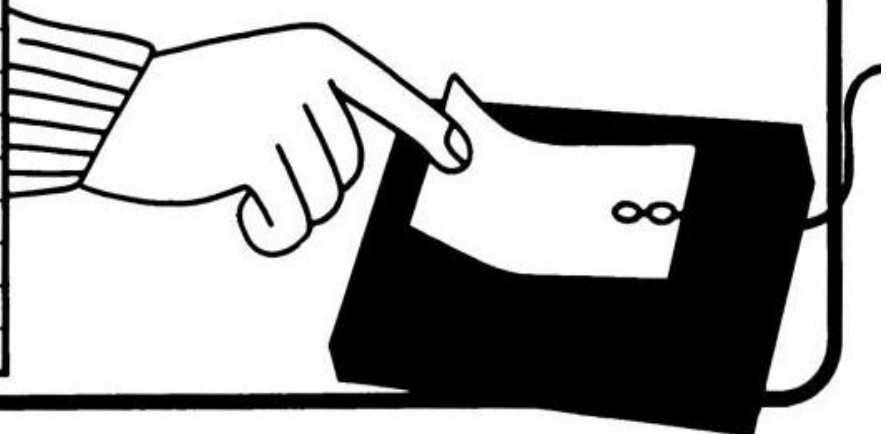
THE

LORD

WILL

SPEAK

PSALM 85:8



제 84 공과 급류

성경본문: 시편 121:1-2; 마태복음 14:22-33; 누가복음 11:34-36

요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시편 119:37)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우리가 탄 뗏목의 뱃머리는 물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터커와 나는 위기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나는 왜 잠시 방심했을까요? 나는 협곡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황금 독수리의 희귀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독수리의 모습에 거의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독수리를 보는 그 순간 내가 타고 있던 뗏목은 물살이 좁아지는 협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이제 해류는 성난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우리 주위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내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였습니다. 뗏목이 파도의 물마루에 부딪히자, 물보라 벽이 우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뱃머리가 파도를 향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물이 끊김 없이 밀어닥치면서 우리를 가차 없이 어떤 재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이 래프팅 여행을 시작했는지 후회했습니다. 나는 래프팅 매뉴얼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파도는 강한 전진 속도를 내면서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강한 전진 속도로 뗏목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뗏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파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탄 뗏목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터커의 팔과 다리가 뒤틀리면서 물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외침은 내가 미친 듯이 노를 움켜쥐고 물속에 가라앉을 때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나는 물속에서 몇 분 동안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었을 때 터커가 뗏목을 잡고 강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앞을 지나가는 노를 열린 불잡았습니다. 터커와 나는 몸이 흠뻑 젖어서 몹시 추웠지만, 우리는 뗏목을 끌어당겨 바로 세우고 장비를 찾아 수리했습니다.

나는 내가 터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터커가 나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대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 그는 자신의 카우보이 모자에 물을 짜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앞에 급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뒤를 돌아 너를 보았더니 너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거야?"

"독수리." 나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금 독수리 한 마리가 협곡 가장자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을 보는 동안 잠시 파도를 주의해 보지 못했어."

"나는 왜 너 같은 아마추어를 파트너로 선택했을까!" 터커가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 * * * *

대니는 그날 한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강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했습니다. 독수리 때문에 몇 초 동안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급류를 통과해야 하는 오늘 같은 상황은 큰 재앙이 될 뻔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급류를 타는 뗏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생명의 강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계속 주의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잠시 내려다보자, 그는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보다 주변 상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편 119 편 37 절에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그 자체로 나쁘거나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방해되는 것은 기꺼이 무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급류"를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Lesson 84 Activity

LOOKING THE
RIGHT WAY



To find out where we should look for help, use the eye chart and fill in the blanks below. The numbers under each blank space are coordinates for the letters on the chart. For example, the first blank says 8-5, which means 8 lines down and 5 letters from the left.

8-5 7-3 2-1 3-3 10-3 5-3 6-2 8-6 10-8 6-6 7-7 9-7 5-4 9-1 6-1

1-1 9-4 3-1 9-8 8-3 7-6 7-1 10-4 3-2 8-4 4-3 2-2 10-6 9-3 7-5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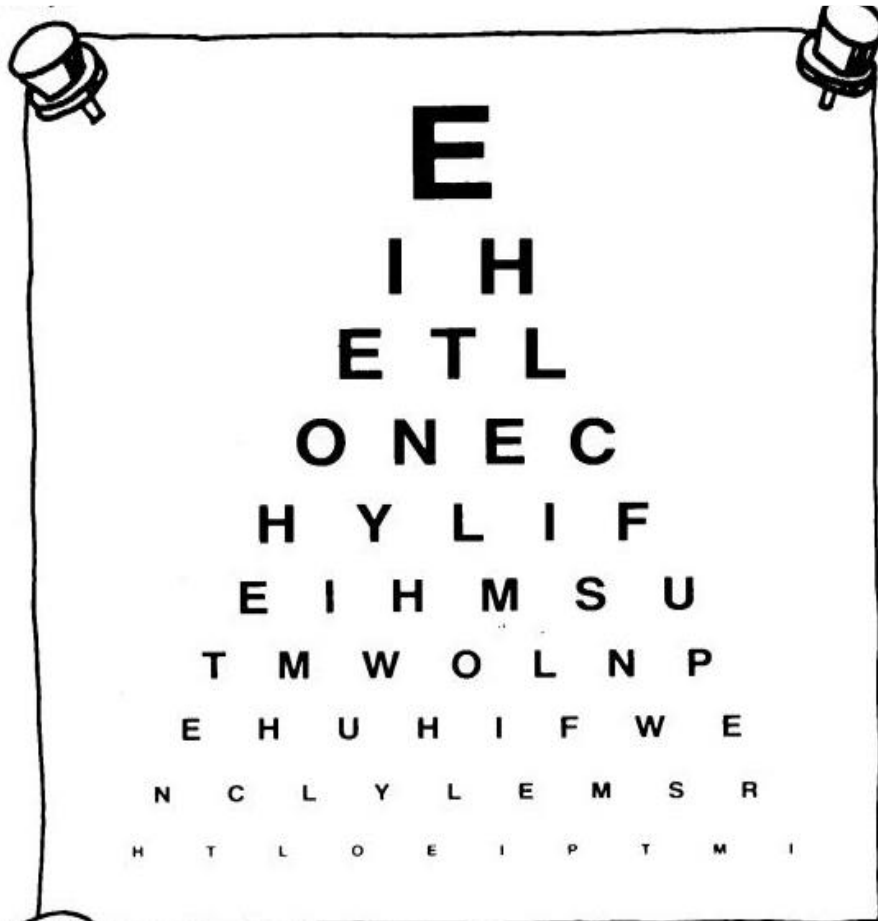
5-5 9-9 7-4 7-2 8-7 6-3 8-1 4-2 9-2 9-6 4-4 4-1 6-4 10-5 10-2 8-2

10-9 5-2 5-1 8-8 9-5 10-7 . - Psalm 121:1

"IT'S ALL YOURS, LORD"

올바른 것을 바라보세요!

아래 차트를 활용하며 밑줄에 알맞은 알파벳을 찾아 써 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밑줄에 적힌 8-5 는 아래로 8 번째 줄, 왼쪽에서 5 번째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I WILL LIFT UP MINE
8-5 7-3 2-1 3-3 10-3 5-3 6-2 8-6 10-8 6-6 7-7 9-7 5-4 9-1 6-1

EYES UNTO THE HILLS,
1-1 9-4 3-1 9-8 8-3 7-6 7-1 10-4 3-2 8-4 4-3 2-2 10-6 9-3 7-5 6-5

FROM WHENCE COMETH
5-5 9-9 7-4 7-2 8-7 6-3 8-1 4-2 9-2 9-6 4-4 4-1 6-4 10-5 10-2 8-2

MY HELP. Psalm 121:1
10-9 5-2 5-1 8-8 9-5 10-7

제 85 공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경본문: 마태복음 26:36-42; 빌립보서 2:5-11

요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10)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보일 뿐 매우 고요했습니다. 병사들은 긴 밤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기뻐하며 조용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그들 아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었을까요? 그들이 지키고 있던 동굴 앞의 돌이 흔들렸습니다. 천사가 와서 돌을 굴러 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 * * * *

성경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 4:4)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기 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우리의 계획에 따르면 네가 천국을 떠나 땅에서 살아야 할 때로구나. 너는 아기로 태어나서 다른 인간처럼 자랄 것이다. 너는 왕자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부자의 아들도 아닐 것이다. 너의 부모는 가난할 것이다. 평생 가난할 것이다. 땅의 어떤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를 배척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선택된 장소에서 너는 인간으로 죽을 것이다. 네가 죽을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떠맡게 되어, 이 땅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작은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천사들은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자랐을 때 그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가 좋아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분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져야 할 때였습니다. 그 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경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눅 22:44)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와서 예수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은 그에게 예수 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 밖으로 끌려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참아 내었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성자 하나님으로 드러냈다면 그의 원수들은 공포에 떨며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는 결코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의 친구 몇몇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무덤을 지킬 군인들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그의 시신을 훔치려 오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도다!”

* * * * *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기로 했다면 부활절 아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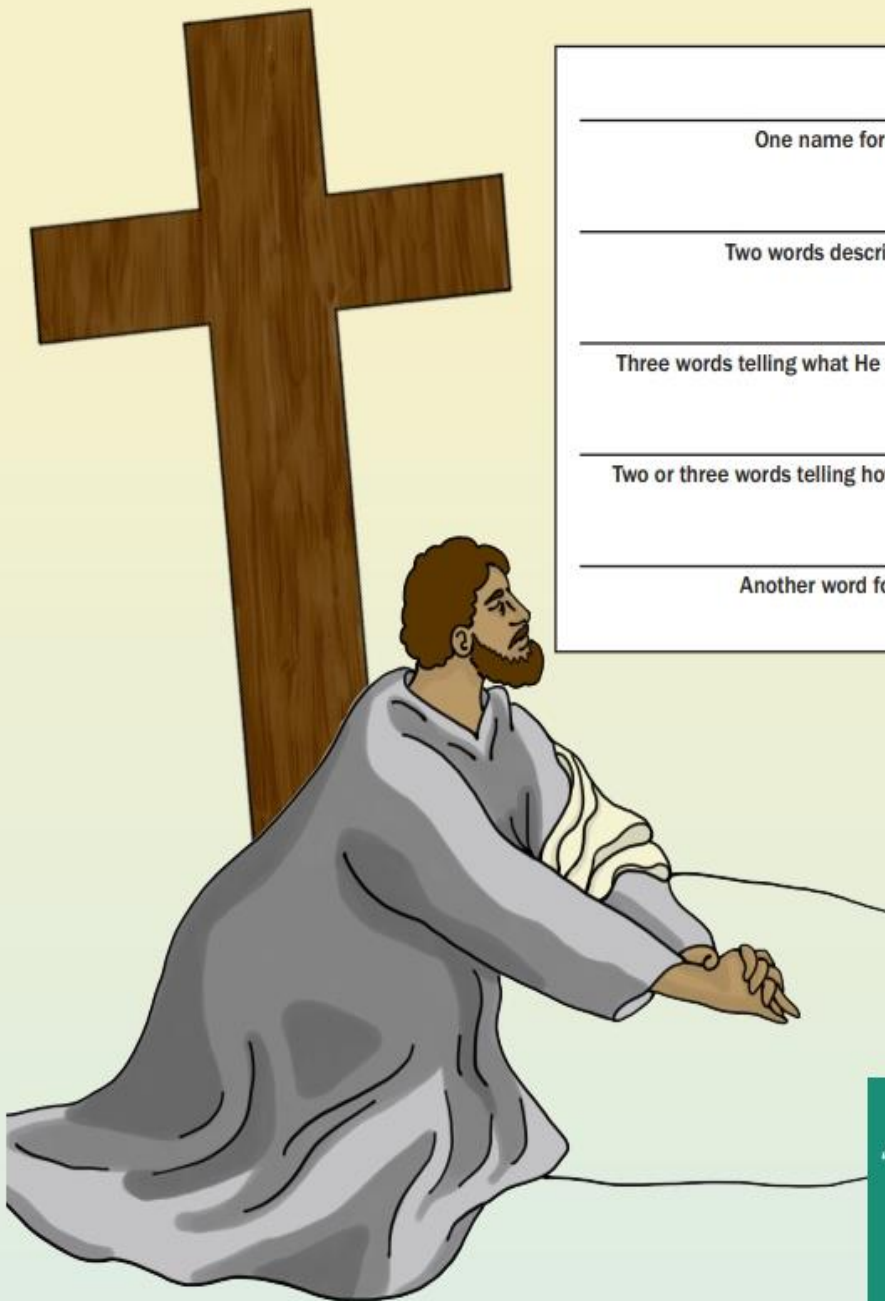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의 지상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알았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Lesson 85 Activity

**NOT MY WILL,
BUT THINE**

Jesus submitted His will when He died on the Cross for us. Write a Cinquain poem about Him on the lines below. Follow the instructions under each line. It does not have to rhyme.



One name for Jesus

Two words describing Him

Three words telling what He did, ending with "ing"

Two or three words telling how you feel about Him

Another word for Jesus

"IT'S ALL YOURS, LORD"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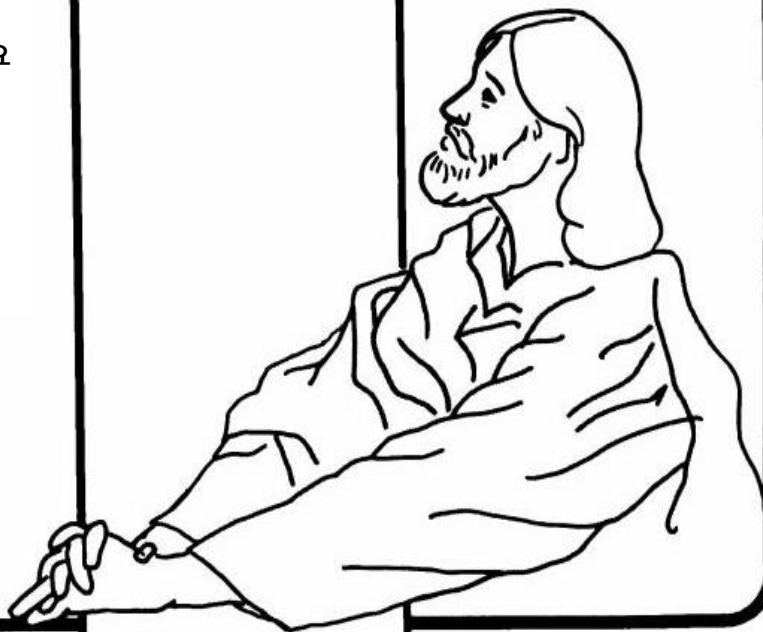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 느낀 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
다. 밑줄 아래 지침
을 따라 예수님께
관한 시를 만들어
보세요. 운율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이름



제 86 공과 큰 변화

성경본문: 로마서 8:5-9; 빌립보서 2:3, 4:4-9

요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3)

테렌스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 전 작별 인사를 한 사촌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학을 보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겠지. 엄마와 아빠는 기뻐하실까!’ 테렌스가 예수님께 그의 마음과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서 보낸 방학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방학 시작 당시만 해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봄 방학을 맞이하여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들과 즐겁게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촌들이 참여하는 4 일 간의 청소년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련회를 통해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테렌스는 새 성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성경은 청소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학생들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페이지, 너무 많은 단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테렌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사야라는 이름을 보고 페이지 넘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아침에 할머니와 함께 읽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몇 구절을 훑어보다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는 말씀에 멈췄습니다. ‘평강! 그런 일이 가능할까?’ 테렌스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테렌스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옆에 앉은 남자가 계속 성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테렌스는 그 남자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종교 광신자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기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테렌스, 예수님은 너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셨단다. 사탄은 너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할 거야. 너는 사탄을 조심해야 한단다. 사탄은 예수님이 너에게 준 것을 의심하는 마음을 줄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속삭일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할 거야.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기억해. 사탄은 너를 지옥에서 보고 싶어 하니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면 예수님은 항상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할머니는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여러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테렌스는 종이에 적힌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첫 구절은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는 그 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색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4 장 8 절과 9 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보면서,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평강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8 절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테렌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아직 펼쳐져 있는 자신의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또 그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지.’ 테렌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할 거야!’ 테렌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저의 성경책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글썄, 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 멋진 새 친구를 만났답니다.”

Lesson 86 Activity

**IT'S THE
THOUGHT THAT
COUNTS!**

Our thoughts come from our hearts. What do you
suppose these people are thinking?



Jane
Jealousy



"Hey! Look at Audra's
new coat. It's probably
REAL le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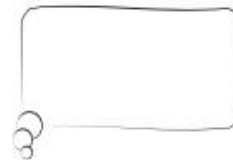
Kiera
Kindness



Mike
Malice



"Hey guys! Look at
Sawyer's new car. It's the
BEST they s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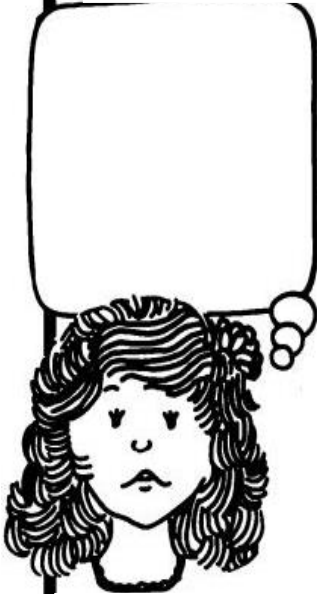
Keyron
Chr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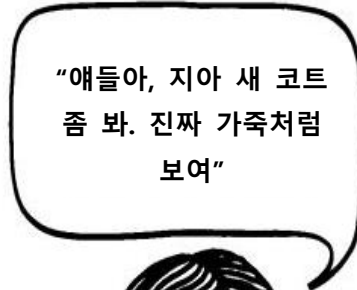
"IT'S ALL YOURS, LORD"

중요한 것은 생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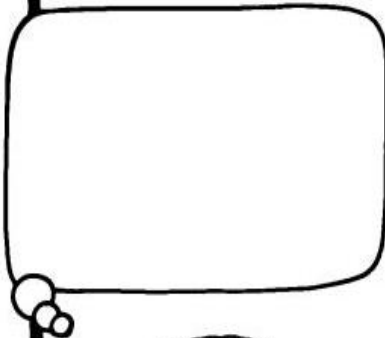
우리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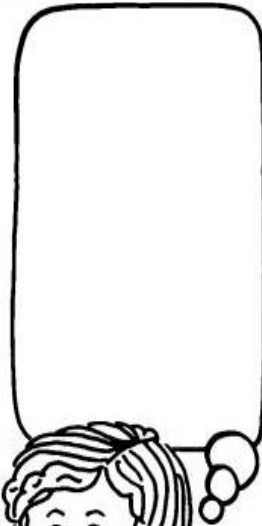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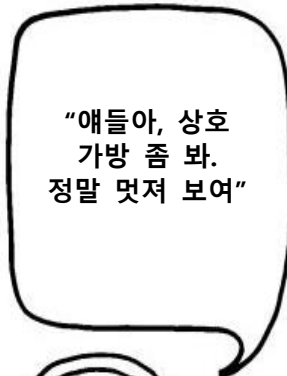
질투 많은 헤린



친절한 하은



욕심 많은 재훈



착한 정수

제 87 공과 일기장

성경본문: 고린도전서 3:15-20; 고린도후서 6:14-18; 에베소서 5:3-5

요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3)

5 월 2 일 — 오늘 가장 신나는 일이 일어났어! 내가 태수 오빠를 만났어.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어. 태수 오빠의 여동생 나리는 나와 수학 수업을 같이 들어. 나리가 독감으로 일주일 동안 학교에 오지 못해서 수학 선생님이 나리 집에 가서 나리의 숙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거든. 그 반에서 내가 나리 집이랑 제일 가까이 살거든. 내가 나리 집에 갔는데 태수 오빠가 집에 있었던 거야. 내가 태수 오빠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다니. 태수오빠는 정말 멋졌어!

5 월 3 일 — 나는 새로운 친구를 오늘 만났어. 나리의 친구인데 그녀의 이름이레아라고 했어. 난 레아랑 친해지고 싶어.

5 월 5 일 — 내가 오늘 밤하늘을 걷는 기분이야. 내가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태수 오빠를 만난 거야. 나는 오빠랑 같이 집으로 가면서 전혀 떨리지 않았어. 태수오빠는 오크릿지 고등학교의 수석인데 말이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 시간이 금방 흘러갔지. 벌써 4 시가 된 걸 알고 믿기지 않았어. 나는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해서 얼마나 서둘러 집에 왔다고.

5 월 6 일 — 오늘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레아를 만났어. 나는 레아와 많은이야기를 나누었어. 레아는 내 또래 친구에 비해 조숙한 것 같아. 나는 그 친구랑 대화하는 것이 좋았어. 우리는 서로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5 월 10 일 — 나리가 하교 후에 나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 나는 그녀와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나리 집에 있는데, 태수 오빠가 집으로 왔어. 나는 태수오빠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목요일 밤에는 교회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한다고 말하게 되었어. 그렇게 말했더니, 태수 오빠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매주 목요일마다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어. 태수 오빠는 교회에 관해 관심이 있을까?

5 월 11 일 - 나는 오늘 나리에게 레아도 너희 집에 같이 가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어. 레아와 나는 나리 집에 가게 되었어. 우리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레아가 나에게 목요 성경공부모임에 관해 물어보았고, 어떤 교회인지도 물어보았어. 레아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궁금해했어.

5 월 12 일 — 나는 오늘 나리와 태수오빠에게 교회 청소년 친목 모임에 한 번 오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어. 나리는 그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고, 태수오빠는 변명만 늘어놓았어. 그는 숙제가 있다고 얼버무리더니 감기에 걸렸다고 했어. 나는 오빠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 그는 교회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5 월 14 일 — 레아가 오늘 전화를 걸어 나리와 나를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 했어. 특별 청소년 모임 이 있다고. 나리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가겠다고 했어. 나는 다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조금 겁이 났지만, 레아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했지.

5 월 20 일 —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어! 나는 나리와 태수오빠 가족과 함께 야외로 갔거든. 나리의 부모님 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 우리는 그곳에서 자전거를 탔고, 핫도그를 맛있게 먹었어.

5 월 21 일 — 나는 오늘 가족 소풍에 레아를 데려갔어. 레아는 내가 아는 또래친구들과 많이 달랐어. 엄마 아빠도 레아가 얼마나 상냥한 소녀인지 칭찬을 하셨지. 레아는 또래들과 왜 그렇게 다를까?

5 월 22 일 — 나는 어제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아주 혼란스러워. 오늘 주일 청소년 공과 시간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리스도 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에 대해 토론했어. 나는 태수 오빠를 생각했 지.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 려고 노력했지만, 그와 교제하는 것은 힘들겠지.

5 월 23 일 — 민희와 숙제하고 TV 를 보았어. 주일에 있을 콘서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 레아가 콘서 트에 갈지 궁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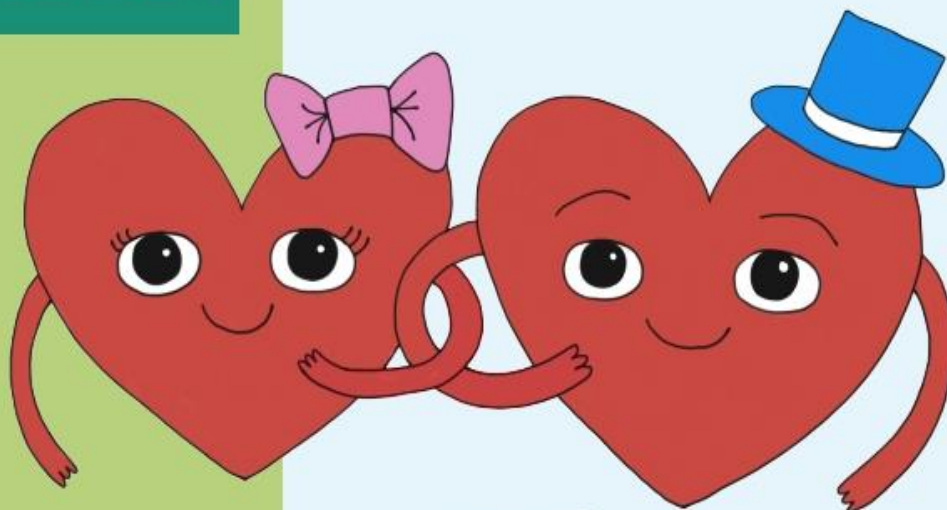
5 월 25 일 — 태수오빠가 콘서트에 같이 가자고 했어. 나는 거절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 셧어. “아니, 나는 오빠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오빠는 예수님에 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대화를 조금 나누었지만,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어.

5 월 26 일 — 오늘 아침에 레아에게 전화를 걸어 주일에 있을 콘서트에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어. 그녀 는 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콘서트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 나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 는지 알 수 있었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녀의 모습이 멋져 보였어.

Lesson 87 Activity

**RIGHT
RELATIONSHIPS**

Unscramble the words to find God's answer to Daphne's question. Try to complete the verse before you look it up in the Bible.



EB EY TON
YLAULQEUN DOKEY
ROTTEGHE WHIT
SUNBELIEVER:
ROF HATW LLSIHOFEPW
HAHT NETHISESSOURG
TIWH NETHUISESNSOURG?

- II Corinthians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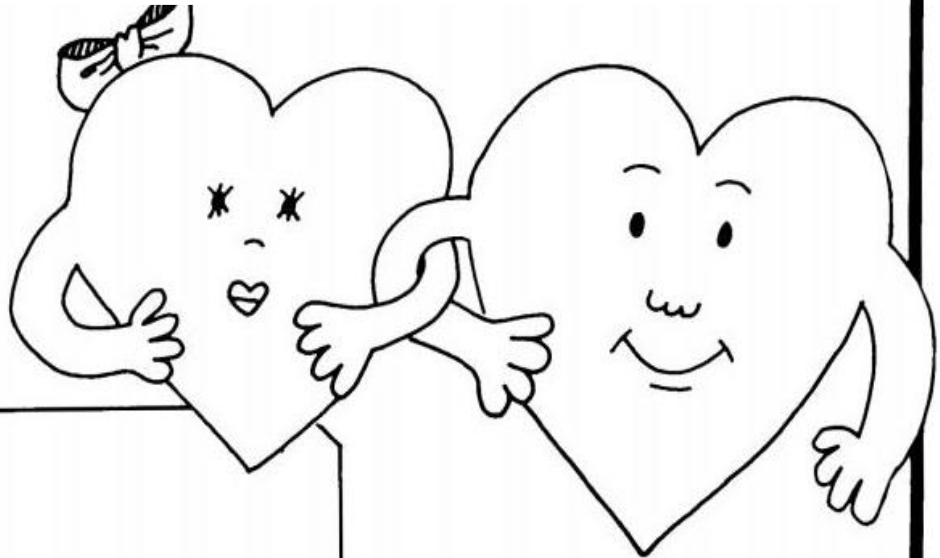
Asher asked me for a date. He's a really nice guy but he's not a Christian. What would Jesus say?



"IT'S ALL YOURS, LORD"

올바른 관계

왼쪽 아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고린도후서 6:14 KJV). 오른쪽 아래 고민하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BE YE NOT
EB EY TON

UNEQUALLY YOKED
YLAULQEUN DOKEY

TOGETHER WITH
ROTTEGHE WHIT

UNBELIEVERS:
SUNBELIEVER

FOR WHAT FELLOWSHIP
ROF HATW LLSIHOFEP

HATH RIGHTEOUSNESS
HAHT NETHISESSOURG

WITH UNRIGHTEOUSNESS?
TIWH NETHUISESNSOURG

II Corinthians 6:14

애디가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실까?



제 88 공과 특별한 어머니

성경본문: 잠언 31:10-31

요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20)

여러분은 어머니의 존재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에 대해 돈을 드려야 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요.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더 높은 값어치와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잠 31:10).

많은 어머니가 집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매일 물건을 정리합니다. 그들은 식료품을 사고, 가족을 위해 메뉴를 짜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요리하고 도시락을 싸고, 이부자리를 정리합니다. 그들은 빨래를 세탁하고 정리하며 다림질하고 가족들이 필요한 의류를 구매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나 여러 가지 활동, 수업에 아이들을 태워다 줍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숙제를 돕고 가족 중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머니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면 요리사, 제빵사, 교사, 간호사, 가정부, 운전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부터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어머니가 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일이 당연하고 가정의 모든 일을 어머니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정말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는 어린 소녀로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족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라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에 어머니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많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활하는 방식과 가사를 책임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가정이 동일한 것은 가정의 책임은 부모가 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기 싫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리와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권위를 존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부모가 되어 가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배우고 경험한다면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될 것입니다.

가족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십시오. 차에 배터리가 없다면 엔진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차에 바퀴가 없다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에 조종 장치가 없다면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똑같지 않은 것처럼 모든 자동차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자동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각 부품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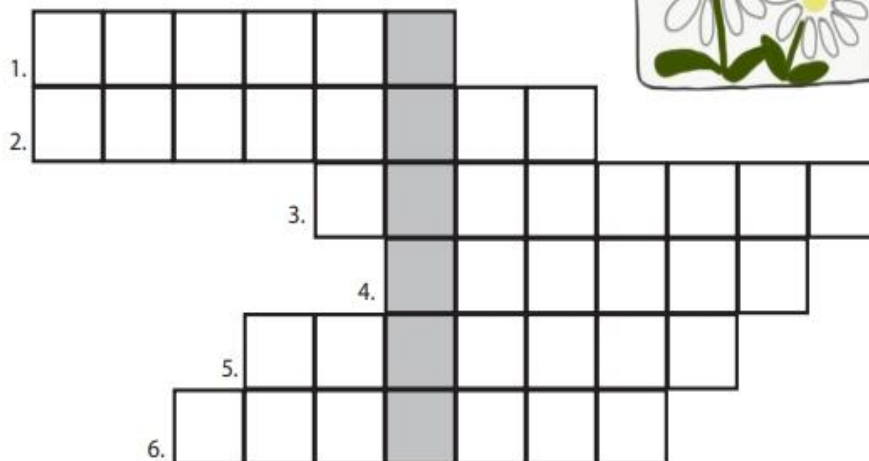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때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Lesson 88 Activity

**IT'S YOUR DAY,
MOM!**

Read Proverbs 31:10-31 and fill in the blanks in the following verses. Then copy the words in their proper places in the puzzle below.

1. She openeth her mouth with _____. (verse 26)
2. Who can find a _____ woman? (verse 10)
3. She girdeth her loins with _____. (verse 17)
4. Strength and _____ are her clothing. (verse 25)
5. Her children arise up, and call her _____. (verse 28)
6. A woman that _____ the LORD, she shall be praised. (verse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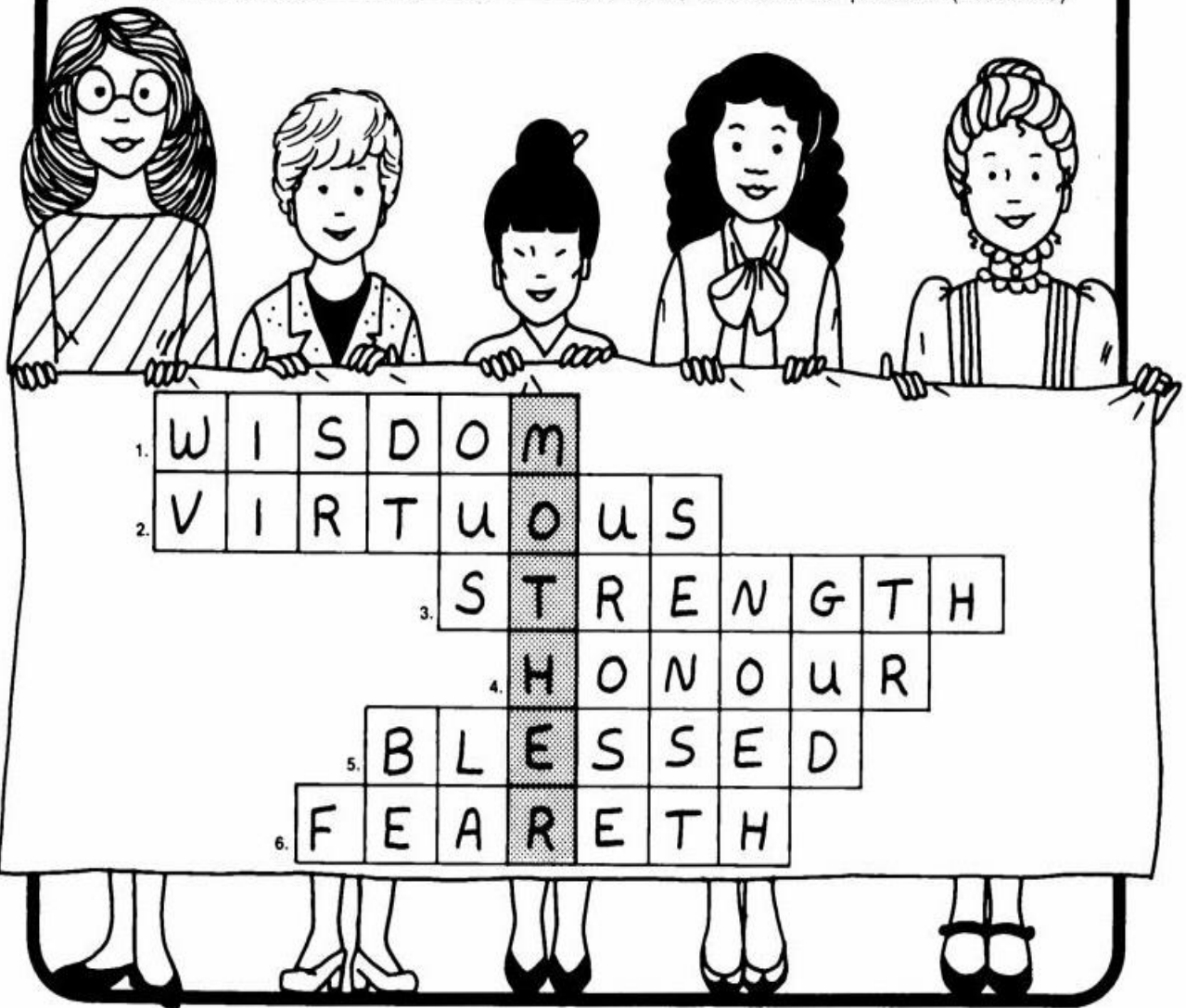


"IT'S ALL YOURS, LORD"

여러분의 아빠, 엄마!

잠언 31 장 10-31 절(KJV)을 읽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아래 네모 퍼즐 속에 채워 넣으세요.

1. She openeth her mouth with WISDOM . (verse 26)
2. Who can find a VIRTUOUS woman? (verse 10)
3. She girdeth her loins with STRENGTH . (verse 17)
4. Strength and HONOUR are her clothing. (verse 25)
5. Her children arise up, and call her BLESSED . (verse 28)
6. A woman that FEARETH the LORD, she shall be praised. (verse 30)



제 89 공과 자원하여 주기

성경본문: 잠언 3:9-10; 마태복음 19:6-22; 사도행전 2:44-47

요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38)

델마 할머니는 구부러진 어깨와 비틀어진 손가락, 머리를 살짝 흔드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내가 바라본 할머니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비틀어진 그분의 손을 한번 만져 본다면 그분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사랑이 흘러넘치는 할머니의 애정 어린 눈빛에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델마 할머니는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른 중에서도 최고의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에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그분은 여동생과 함께 작은 2 층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최신 유행하는 옷이 아닌 소박하고 단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동생 외에 가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델마 할머니는 어떻게 그토록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 하는지 왜 그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이 된다고 말하는지 내가 본 그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델마 할머니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을 기쁨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분은 많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매달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자신의 양말을 벗어 길거리에 맨발로 있는 여성 노숙자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아이들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외국에 보내는 데 후원하였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선원들을 대접하기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 행사에 헌금하였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아껴 쓰고 돈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진 돈은 별로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돈을 주거나 후원을 하기 전에는 꼭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는 말씀의 진리를, 할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 옷, 삶이 단조롭지만, 그분의 내면은 늘 빛났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보물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할머니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도 그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Lesson 89 Activity

**HOW MUCH
WILL I GET?**

To find another way to say Luke 6:38, read every other word in the spiral starting at the word "if." Go around the spiral twice. The second time around, start with the word "you." Write your answer on the lines be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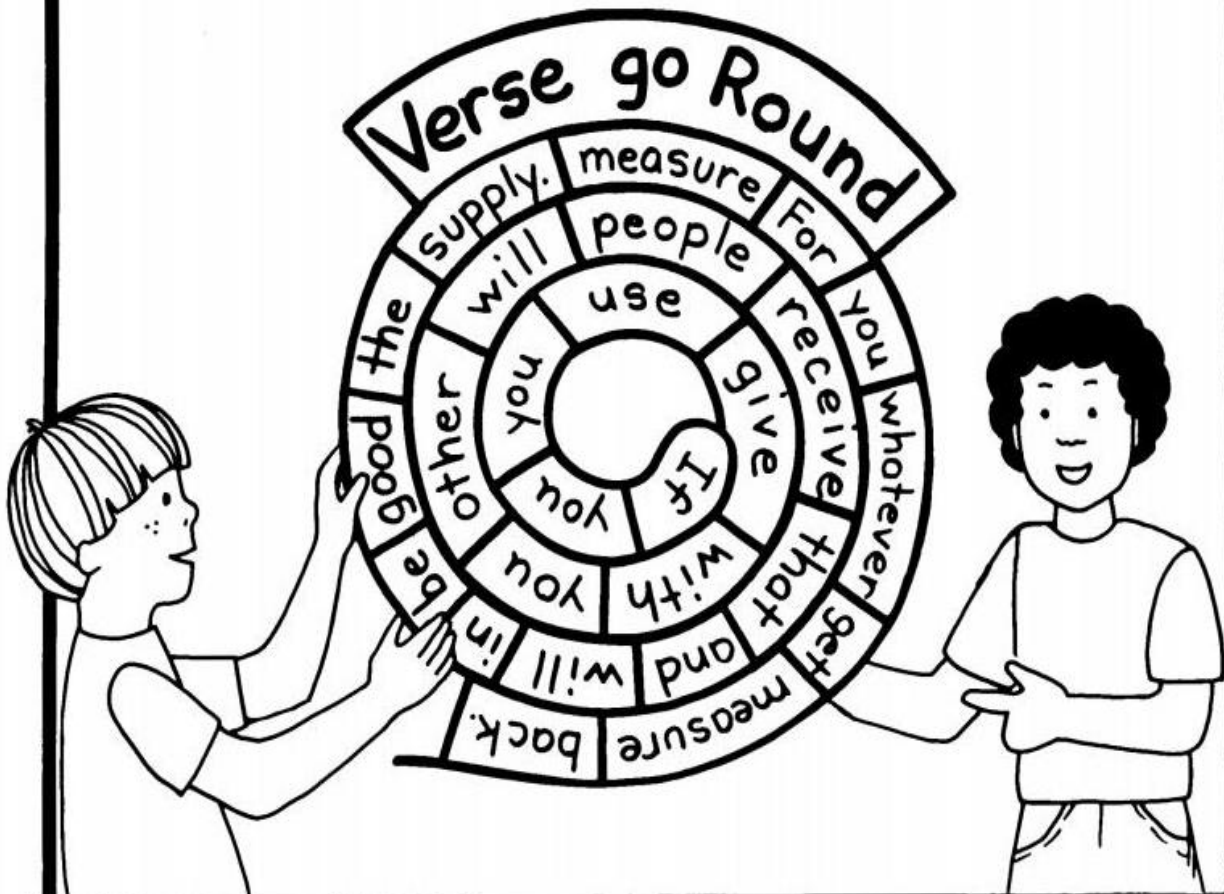
VERSE VORTEX



"IT'S ALL YOURS, LORD"

나는 자원하여 줄 수 있을까?

아래 나선형에 적힌 단어들을 활용하여 누가복음 6 장 38 절(KJV)을 완성해보세요. 나선형은 두 바퀴 돌아갑니다. 처음 돌아갈 때는 'IF'로 시작하고, 두 번째 돌아갈 때는 'YOU'로 시작합니다. 한 칸 뒤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해 보세요.



IF YOU GIVE YOU WILL RECEIVE AND IN
GOOD SUPPLY. FOR WHATEVER MEASURE
YOU USE WITH OTHER PEOPLE THAT WILL
BE THE MEASURE YOU GET BACK.

제 90 공과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성경본문: 누가복음 12:16-21; 14:16-24; 야고보서 4:13-15

요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2)

데릭은 방문을 열고 침대 위에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회책, 수학책, 노트, 찰리가 빌려준 비디오 게임 디스크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 디스크를 집어 들고 케이스를 열어 디스크를 꺼내려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어머니는 그의 방문을 조금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데릭, 잘 잤다 왔니? 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데릭은 바닥에 떨어진 디스크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손에 뭐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있는 게임 디스크 케이스를 발견하고 약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데릭,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좋겠구나. 오늘 저녁 식사 후에 할머니 댁에 가야 하는 거 알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집에 오면 네가 숙제 할 시간이 없을 거야.”

“물론이죠, 엄마.” 데릭은 비디오 게임기에 디스크를 삽입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데릭!” 한 시간 후에 그의 어머니가 데릭을 불렀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야. 아버지께서 잠시 후에 도착 하신대.” 데릭은 깜짝 놀라 눈을 들어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벌써 5시가 넘었어! 난 그냥 몇 분 동안 게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학 숙제를 못 했네. 내일은 사회 시험이 있어서 공부도 해야 했는데.’ 그는 빨리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한 후,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모두 마쳤을 때 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디저트를 준비해 놓으셨데.”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자동차 부품을 주문해 두었는데 7시 전까지 가기로 했거든.”

데릭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숙제는 어떡하지!’ 그의 어머니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숙제 다 했니, 데릭?”

그는 눈앞의 빈 접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음, 다 하지는 못했어요. 엄마.”

어머니는 그를 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데릭! 숙제 시작은 했니? 저녁 먹기 전에 비디오 게임만 한 거니?”

데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엄마.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시계를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숙제를 얼마나 해야 하니, 데릭?” 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내일 있는 사회 시험공부를 해야 해요.”

그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공부해야 하니 집에 있어야겠구나. 나는 자동차 부품을 찾으러 가야 해서 지금 빨리 출발해야 한단다. 할머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데릭의 얼굴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아, 아빠, 할머니 댁에 가서 숙제하면 안 돼요?”

“아니, 아들이야. 집에 남아서 너의 숙제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부모님은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셨고 그의 아버지가 데릭의 방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어. 아빠는 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는 데릭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꽂이에 있는 성경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성경말씀이 있단다.” 그는 에베소서 5 장 15 절과 16 절을 찾으셨습니다.

데릭은 아버지가 찾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5-16)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1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데릭이 말을 조금 더 들으면서 대답했습니다. “

“그래, 바로 그거야.” 그의 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그 것을 소유할 수 있단다. 시간도 이와 같아. 우리는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단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지.”

데릭은 약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비디오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릭, 이해를 빨리 잘하는구나. 오늘은 비디오 게임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단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어.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단다. 영원한 것을 위해 너는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릭, 숙제를 다 했다면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들어 주신 초콜릿 케이크 먹을래?”

Lesson 90 Activity

**DO YOU HAVE
TIME?**

In Bible story, three men made excuses why they couldn't attend the great supper. Write their excuses in the boxes.

"I can not come!"

Excuse #1

"I can not come!"

Excuse #2

"I can not come!"

Excuse #3

Today, many people still make excuses for not having time to serve Jesus. Look at the two people below and write what you think might be used for an excuse in each of these situations.

Excuse



Excuse



"IT'S ALL YOURS, LORD"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누가복음 말씀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명했는지 적어 보세요.

I HAVE BOUGHT
A PIECE OF
GROUND AND I
MUST GO SEE IT.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MUST
GO PROVE THEM.

I HAVE MARRIED
A WIFE SO I
CANNOT GO TO
THE SUP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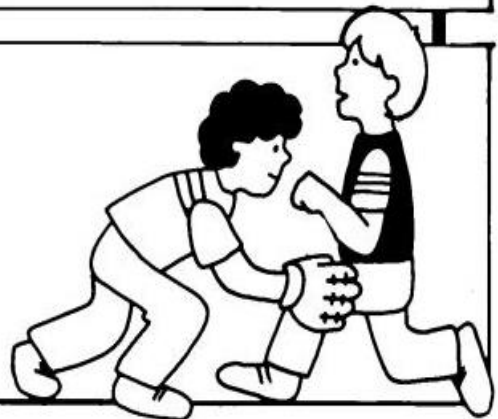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아래 두 사람은 어떤 변명을 했을지 적어보세요.



Excuse: _____

Excuse: _____



제 91 공과 안전한 미래

성경본문: 빌립보서 3:7-15

요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6)

"엄마,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어땠는지 다시 말해주세요." 여덟 살 셀라는 어머니의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셀라의 어머니는 셀라의 손을 잡고 오빠들이 있는 거실로 갔습니다.

"셀라,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아빠가 저녁 식사 후에 우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름 저녁 창밖을 내다보면서 셀라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그때 네 살도 되지 않았지. 너는 아빠와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단다. 내가 오빠들을 도와주고 집안일하는 동안 아빠는 너와 산책하러 가거나 너와 함께 놀아주었지. 아빠는 내가 너를 재우는 동안 오빠들의 숙제를 도와주었던단다."

"오빠에게 숙제가 있었나요?" 셀라는 열두 살 된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는 쿠퍼 오빠가 1 학년이어서 읽기 쓰기 숙제가 있었단다. 아빠는 쿠퍼가 글을 빨리 익힌다고 좋아하셨지."

"엄마, 그때 리암 오빠는 몇 살이었나요?"

셀라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리암이가 10 살이었어. 아빠는 리암이의 수학 숙제를 가르쳐 주었던단다."

리암은 아빠 회사 상사가 와서 비행기 추락 사고에 관해 이야기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변했었는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기억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었죠. 엄마, 셀라와 쿠퍼에게 왜 그렇게 말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셀라의 손을 잡고 셀라의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와 결혼하고 결혼 초기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했단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 너희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너희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해 달라고 말이야."

"아빠가 출장을 가서 집에 오기 전날, 나는 이번 달 지불해야 하는 청구 금액을 보면서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마르다, 내가 너를 돌볼게'라는 말이 들렸단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너희 아빠에게 이야기했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달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으로 생각했거든. 그렇지만 그다음 날, 너희 아빠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

가신 거야. 그제야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단다. 너희 아빠가 하늘 나라로 갔어도 우리를 돌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아야.”

“왜 하나님은 아빠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셀라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아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너희 아빠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셨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항상 얻지는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셨던 특별한 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리암이 말했습니다. “음, 저는 수학이 예전보다 더 쉬워지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볼 때 예수님께 수학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제 침대 조명을 끄면 혼자 어둠 속에서 무서울 때가 가끔 있어요.”라고 셀라가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밤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시고 아침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쿠퍼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강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있어요. 보트가 기울어져서 강물에 빠졌던 때예요. 저는 수영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기도를 했죠. 저는 옆에 있는 통나무를 보았고 그것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와 함께 매일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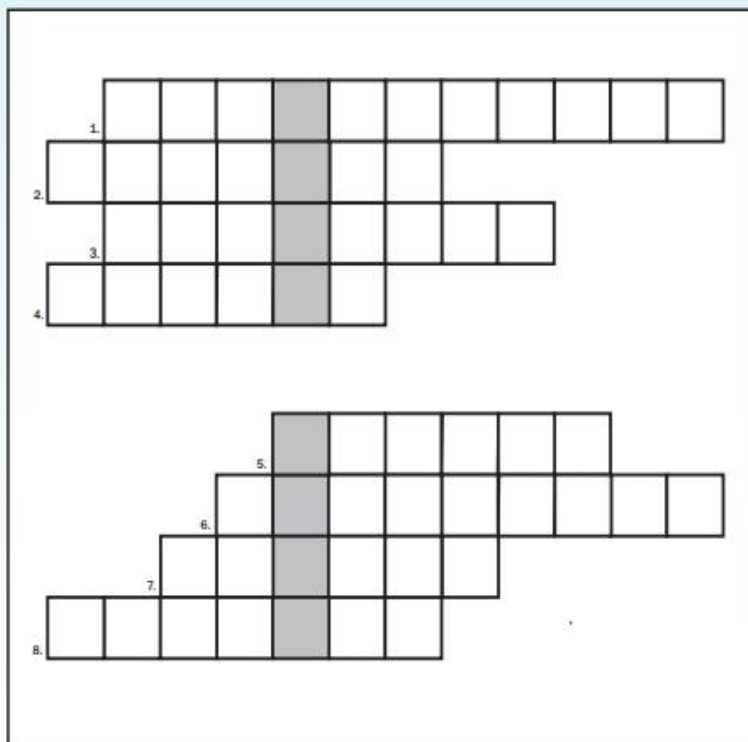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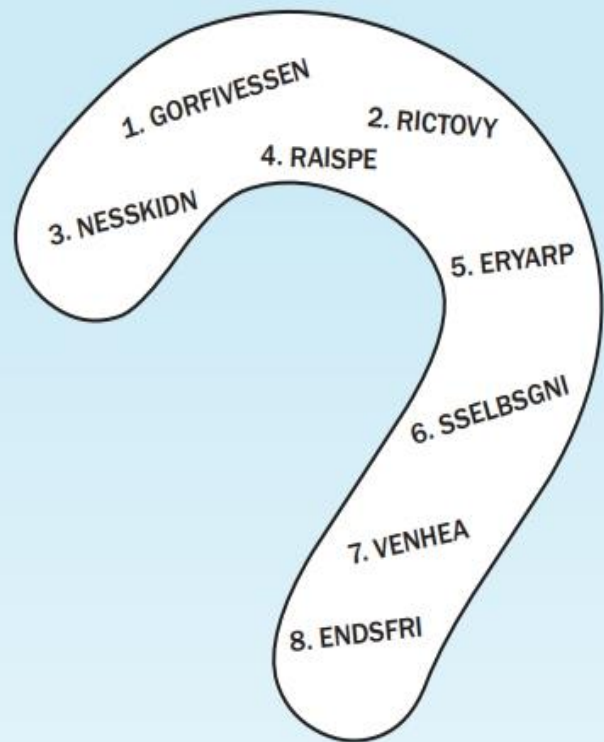
* * * * *

그들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로마서 12:1)”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Lesson 91 Activity

WHAT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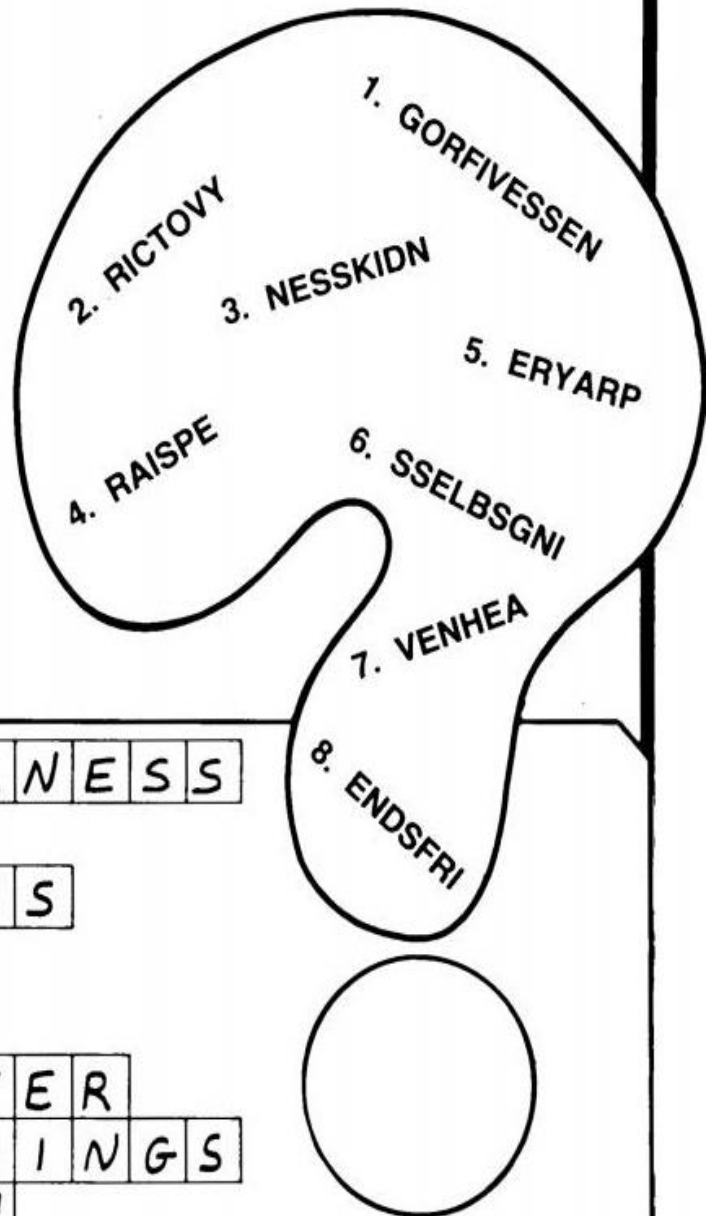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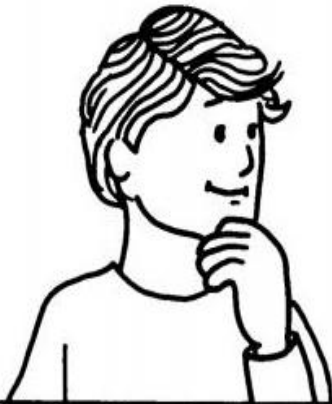
Probably everyone has plans for the future. Find out what plan you should follow. Unscramble each word in the question mark. (These are words that could be in your future.) Write them in the boxes below. The plan will be in the shaded boxes.



"IT'S ALL YOURS, LORD"

어떤 계획?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래 물음표 속에 있는 알파벳을 조합하여 단어를 완성하세요. 각 숫자 별로 만들어진 단어를 아래 네모 칸에 적으세요. 회색 네모 속에 적힌 단어가 오늘의 답입니다.



1.	F	O	R	G	I	V	E	N	E	S	S	
2.	V	I	C	T	O	R	Y					
3.	K	I	N	D	N	E	S	S				
4.	P	R	A	I	S	E						
5.	P	R	A	Y	E	R						
6.	B	L	E	S	S	I	N	G	S			
7.	H	E	A	V	E	N						
8.	F	R	I	E	N	D	S					